



김형수 / 정회원, CDS 건축사사무소  
by Kim, Hyung-soo, KIRA

약력

- 공학박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 대한건축사협회 행정위원장
- 서울시 건축심의위원

## 영국건축사협회의 또 다른 저력 - 도서관

### Another Potential Power of RIBA ; Library

설날이 낀 1월 말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건축사협의회(Architects' Council of Europe)와 건축사 자격 상호 인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이하 MRA)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우리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심재호 이사(UIA 이사)를 협상대표단 단장으로 하여 국토해양부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수민 사무관을 정부 측 대표로, 그리고 필자와 1인을 실무위원으로 하여 유럽 브뤼셀과 런던에 파견되었다.

MRA는 비록 민간부문간의 협정이지만 FTA와 같은 상호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호 자격의 동등한 인정에 관련된 민감한 부분의 협정이기 때문에 협상단의 입장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었다. 유럽시장과 한국시장에 대한 상호 개방에 대한 조건을 조율하는 협상의 성격상 양측이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했고 긴장 속에서 협상이 진행되었다. 다만 이번 협상이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의 협상이 아니라 서로의 관심대상과 MRA에 대한 의지를 탐색하는 Kick Off Meeting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아주 크지는 않았다. 유럽건축사협의회와의 협상단도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주에서 대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협상목록에 대하여 많은 공감대와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성과가 있었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건축사사무소와 연계하여 유럽 건축사들의 한국의 대형 프로젝트와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에 대한 설계 진행이 공공연한 상황이고, 정부도 주요 현상설계에서 외국 건축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지렛대로 하여 유럽 시장에 대한 개방과 건축사 자격의 동등한 인정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한국 건축시장의 잠식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한국의 건축설계시장에는 많은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한국건축사의 유럽시장의 진출, 3국에 대한 동반진출, 유럽 건축사와 동등한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세계 건축계에서의 한국 건축사의 위상 및 입지 제고, 한국 설계 시장의 선진화 등 무시할 수 없는 많은 이점이 존재한다.

이후 협상단은 영국 런던으로 이동하여 진행된 영국건축사협회(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이하 RIBA)와 영국 건축사등록위원회(Architects Registration Board, 이하 ARB)의 방문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축사 등록원 설립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하여 이루어졌다. 176년 전통의 영국건축사협회는 그 연륜 만큼이나 잘 갖추어진 조직과 권위, 그리고

영국건축사협회의 도서관은 단지 도서관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건축 박물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에도 수백 년간 내려오는  
다양한 건축에 관한 도면과 자료들이 많이 존재할 것이므로  
이렇게 대한건축사협회 도서관에서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가 된다면 어떨까하고 생각해 보았다.

영국 건축사들의 자존심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협회 건물도 1934년도에 건립된 유서 깊은 건물로 그 규모도 무척 컸다.

영국건축사협회에서 가장 큰 인상을 받은 것은 도서관이었다. 전통을 존중하는 영국답게 1934년의 도서관 인테리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 규모의 방대함과 체계적인 관리가 방문객을 압도하였다. 이 도서관은 학생 및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으며, 80년 가까이 모여진 다양한 도서들은 건축에 대한 모든 지식을 총 망라하고 있었다. 영국건축사협회는 회원들의 사회적 권익과 실질적인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건축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RIBA회원과 학생 및 일반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협회의 사회적 공헌과 친근함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 도서관은 또한 건축에 관련된 서적 뿐 아니라 수십 년간 수집된 전 세계의 다양한 건축사진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150만장을 넘는다고 한다. 방문당시에도 다양한 복도의 공간에 오래된 건축사진들이 정리되어 전시되고 있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영국건축사협회 도서관의 내부 서고였는데, 안내를 받아 들어간 내부 서고에는 중세 시대부터 수백 년간 내려온 설계도서와 건축에 관한 방대한 규모의 책자가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이었다. 안내를 맡은 관리인은 서고 방문 기념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대 건축사 팔라디오(Andrea Palladio : 1508~1580)가 직접 그린 도면이 담긴 서책을 펼쳐 보여주었다. 마침 그 주간이 팔라디오 탄생 500주년 기념 주간으로 영국건축사협회는 기념전시회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팔라디오는 이탈리아의 건축사인데 영국건축사협회에서 정성스레 그의 탄생 50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영국이 세계의 문화를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팔라디오의 도면을 마주친 것은 정말로 가슴이 뛰는 순간이었다. 영국건축사협회의 도서관은 단지 도서관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건축 박물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에도 수백 년간 내려오는 다양한 건축에 관한 도면과 자료들이 많이 존재할 것이므로 이렇게 대한건축사협회 도서관에서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가 된다면 어떨까하고 생각해 보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건축사협회에도 이러한 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건축에 관련된 지식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도서관은 그 실용적인 목적 뿐 아니라 상징적인 측면에서 협회의 위상을 높여줄 것이다. 건축에 관한 정보나 자료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협회의 도서관을 찾는 날을 기대해 본다. ■